

지역 소식통

정읍시, 정신건강 키오스크

정읍아산병원으로 이전

정읍시보건소가 시민들이 일상에서 마음 건강을 점검할 수 있도록 무료 정신건강검진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정읍아산병원 2층 원무과로 옮겨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시민들의 정신건강 상담 문턱을 낮추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기존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있던 기기를 방문객이 많고 대기 시간이 발생해 병원으로 이전했다. 진료나 행정 업무를 보러 온 환자와 보호자들이 대기 시간을 활용해 자연스럽게 자신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돕는다는 구상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가루쌀 직파

재배기술 현장 연사회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 12일 계화면 신기술시범사업 비교집시포에서 국립식량과학원과 전북농업기술원, 부안군 농업인 30여명이 참석한 가루쌀 직파 재배기술 현장 연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사회에는 가루쌀 품종 '바로미' 종자를 활용해 드론과 무논점파기를 이용한 법식 파종 시연이 진행됐다. 특히 직파재배 방식 도입 시 노동력과 경역비 절감 효과로 건답직파 및 무논점파에 약 17%, 드론직파는 최대 88%까지 절감되며, 경역비 또한 건답직파 54%, 무논점파 60%, 드론직파는 83%까지 절감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장마철 빗물받이

1만 250개 준설 돌입

정읍시가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침수를 막기 위해 관내 1만 250개의 빗물받이 내부 퇴적물을 제거하는 준설 작업에 돌입했다.

이번 작업은 빗물받이가 막혀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물이 빠지는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저지대와 상습 침수구역이 겪을 수 있는 수해 위험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민선 9기 현안사업 선제 대응

부안군, 주요 현안 사업 발굴·국가계획 반영 대응·군민 체감행정 강화 '총력'

부안군은 15일 군청 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민선 9기 주요 정책과제와 군정 현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부서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공식 출범에 따라 새 도정과 전북교육 정책방향 수립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군 주요 현안사업이 핵심 정책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군은 인수위 단계가 당선인의 공약이 실제 정책과제로 구체화 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전 부서가 관련 공약과 인수위 논의과제를 면밀히 검토해 군 현안사업과 연계 가능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도록 했다.

또 건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응 논리와 제안 자료를 신속히 준비해 새 도정 및 교육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사업은 부안형 기본사회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된 핵심 정책과제인 만큼 기획감사담당관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가 기존 사업과의 연계·고도화 방안,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향후 추가 공모 추진 시 군의 선정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논리 보완, 추진체계 정비, 주민참여 방안 마련 등 선제적인 준비에도 나설 방침이다.

세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정부 주도 중장기 사업계획에 대한 대응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해당 계획들은 향후 10년 이상 군의 산업지도와 교통지도를 새

롭게 그릴 중요한 국가계획으로 새만금 개발 방향과 서해안 철도 반영 여부에 따라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군은 정부계획이 확정된 이후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그동안 담당관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가 기존 사업과의 연계·고도화 방안,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관악현 부안군수는 "군정의 모든 정책은 결국 군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각 부서에서는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와 정책 성과를 만들어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 수박, 대한민국 대표 명품으로 도약

롯데백화점 이어 현대백화점 판교점 입점... 특별홍보·판매행사

고창군이 대표 특산물인 '지리적표시 고창수박'의 명품화와 수도권 프리미엄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 12일에는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특별 홍보·판매 행사를 진행하며 수도권 소비자와의 접점을 더욱 넓혀가고 있다.

현대백화점 행사장에서는 시식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홍보 활동이 함께 진행돼 현장 방문객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앞서 지난 5월말에는 롯데백화점 본점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7개 지점에서 '지리적표시 고창 명품수박' 특별홍보·판매 행사를 성공적으로 열었다.

이번 수도권 주요백화점 입점은 지리적표시 고창수박의 브랜드 인지도 높이고, 최고 품질의 명품 수박을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직접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백화점 프리미엄 과일 시장 내 '고창 명품수박'의 입지를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고창 명품수박'은 하우스 재배 수박 중 7~9kg의 중량과 비과과 당도 선별 13브릭스(Brix) 이상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최고급 수박으로, 고창군 수박연합회 소속 우수 농가에서 생산



한 수박만 선별해 출하하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 2024년 '고창수박' 지리적표시 등록 이후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생산·유통·마케팅 전반에 걸친 명품화 전략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번 현대백화점 판교점 입점은 롯데백화점 행사에 이어 프리미엄 유통 채널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명품수박이 롯데백화점에 이어 현대백화점에 서도 소비자들을 만나게 된 것은 고창수박의 품질과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품질관리와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지리적표시 고창수박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수박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드론 띄워 농가 여름 온열질환 막는다

9월까지 확성기 장착 무인기 3대 투입... 농업인 인명피해 적극 대응

정읍시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농업인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무인기(드론) 3대를 투입해 농경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에 도입한 '농업현장 드론 예찰단'은 기존 인력이 직접 돌아보던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폭염 특보가 내려진 날, 기온이 크게 오르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읍, 면, 동 취약 지역을 살피게 된다. 특히 자동차가 들어가기 힘든 좁은

길이나 넓은 밭까지 하늘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점검 활동에는 확성기(스피커)를 장착한 드론 3대가 쓰인다. 예찰단은 하늘에서 작업자를 발견하면 즉시 휴식을 권하고 작업을 멈추도록 유도하는 안내 방송을 내보낸다.

현장 투입 인력은 청년 농업인들로 이루어진 농업회사법인 유원케어팜 소속 10명이 맡았다.

이들은 두 명씩 5개 조를 이뤄 기기 조종과 상황 관찰을 담당한다. 주로 고령자나 혼자 농사를 짓는 이들을 중심으로 현장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만약 위험한 상황을 발견하면 즉각 안내 방송을 송출하고, 필요할 경우 구급 기관과 연계해 빠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9일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마쳤고, 15일부터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돌입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과학축전서 '세계지질공원 홍보·체험 부스' 운영

부안군, 채석강·곰소염전 활용 체험 프로그램 성료... 학생·학부모 눈길 사로잡아

부안군은 지난 13일 부안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2026 부안과학축전에 참가해 전북 서해안 지질공원 홍보·체험 부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축전에서 군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대표 명소인 채석강과 지역 대표 문화 자원인 곰소염전을 융합한 차별화된 체험형 콘텐츠를 선보였다.

자칫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지질학 이론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염전을 활용해 소금 결정의 구조와 광물적 특징을 배우고 채석강의



형성과정을 통해 층리와 퇴적암을 이해하는 천연 소금 세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은 준비된 재료가 조기에 소진될 정도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현재 전북 서해안 지질공원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오(Geo)교육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내 위도중학교, 부안고등학교와 지속적인 교과 연계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전북대·전남대·조선대 등 주요 대학의 지질학 관련 학과들과 연계한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질공원 교육 지원사업인 2026 지오드림에 선정됨에 따라 도서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살린 창의 융합 교육인 'We Do It! 위도 GeOSTEAM'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지질 교육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고인돌야생가족 선사캠프' 대성황

고창군이 세계유산 '고인돌유적지' 일원에서 새롭게 선보인 '고인돌야생가족 선사캠프'가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전반기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올해 5월부터 시작된 '고인돌야생가족 선사캠프'는 민간단체인 (재)문화유산마을과 손잡고 2026년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청동기시대 마을 재현 공간인 죽림선사마을에서 진행되는 1박2일 캠프형 프로그램이다. 본 캠프는 1~3회차 접수 시작과 동시에 조기 매진을 기록하며, 전국 캠핑족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역사·문화 체험 콘텐츠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선사캠프는 '온 가족이 직접 몸으로 부딪치며 즐기는 진짜 청동기 시대의 삶'을 낚듯 그대로 구현해 냈다. 직접 만든 선사시대 의상을 입고 유적 탐방을 시작으로 토제품 만들기, 천연염료 그림 그리기, 사냥 및 탐곡 체험, 선사 악기 연주 등 책으로만 보던 청동기 문화를 온몸으로 경험했다.

특히 이번 캠프의 백미인 '선사인의 부엌' 프로그램은 현대식 캠핑에



익숙한 이들에게 색다른 묘미를 선사했다. 직접 불을 피우고, 화덕에 고기를 구워가며 협동심을 기르는 시간을 가졌다. 밤에는 달빛 아래 판소리 버스킹 감상 등 낭만 가득한 야간 프로그램이 이어져 감동을 더했다.

캠프에 참여한 한 관람객은 "편리한 현대식 캠핑과 달리 온 가족이 땀 흘리며 불을 피우는 과정이 너무나 특별했다"며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아이들과 온몸으로 소통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단순한 야영을 넘어 세계유산의 가치를 몸소 느끼고 가족 간의 유대를 다지는 뜻깊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남은 하반기 일정도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